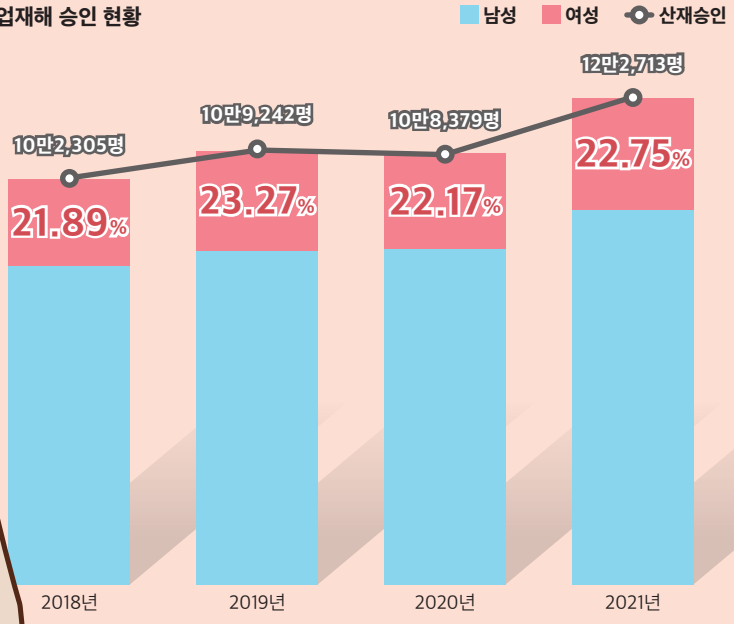
데이터로 읽는 여성 노동자 산업안전보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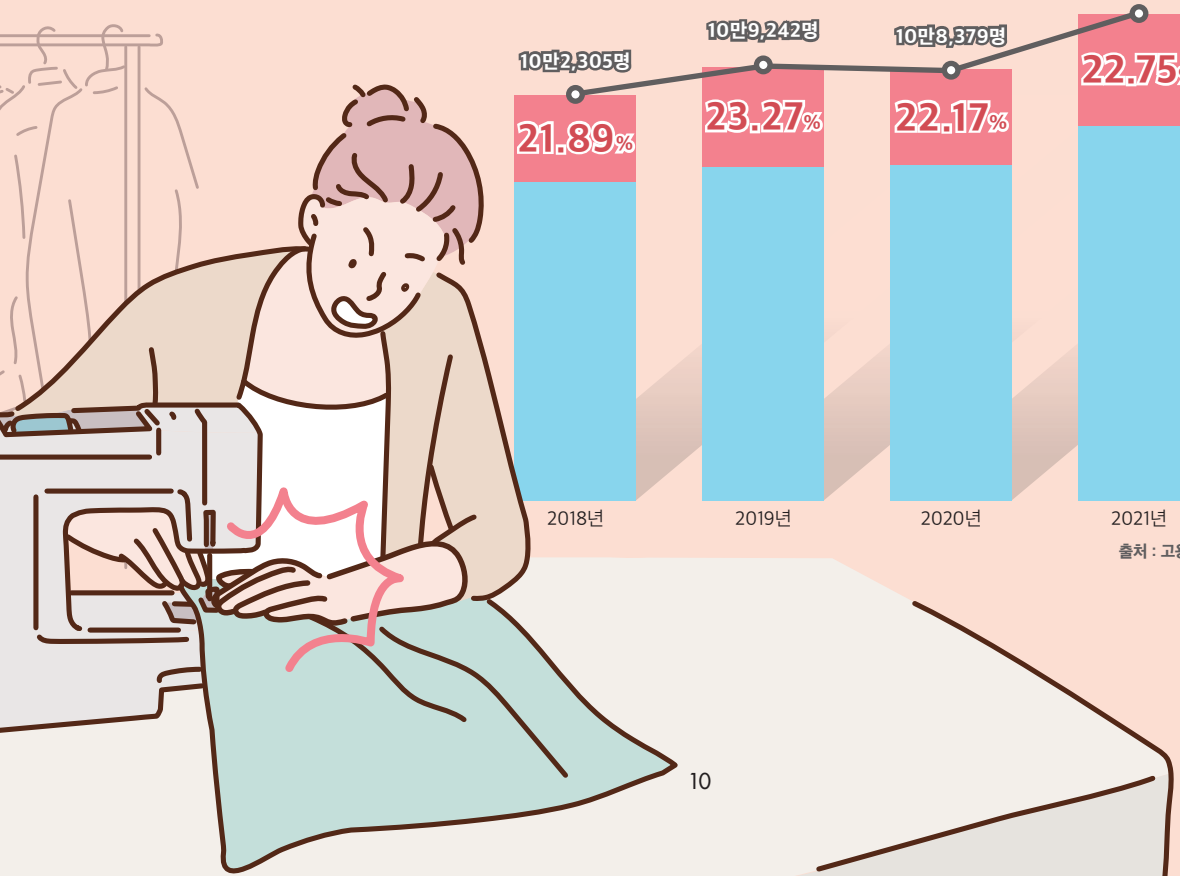
산재 인정 노동자, 남성이 여성보다 3배
남성 77.25% · 여성 22.75%

2021년 산업재해(사망·부상·질병)가 인정된 노동자는 모두 12만2,713명이다. 이중 남성(9만4,800명, 77.25%)이 여성(2만7,913명, 22.75%)보다 3.3배 많다. 이 통계에 근거하면 남성 노동자가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여성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예외 폭이 넓은 가사노동자·간병인 등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산업안전·산재 관련 연구와 정책 설계는 건설업 등 중대재해 발생 업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비스업 등 여성 노동자가 집중된 업종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되는 상황이다.

산업재해 승인 현황



출처 :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021년)

출처 : 근로복지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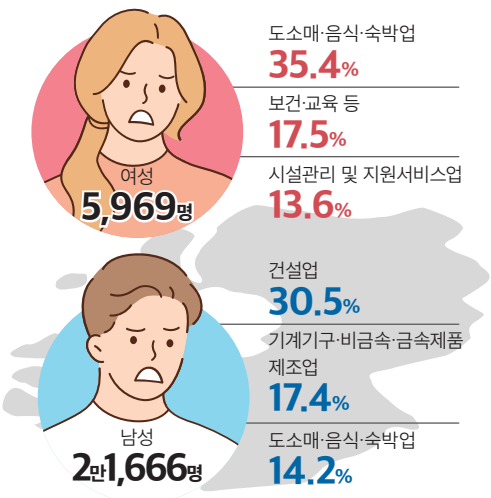
남성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여성 노동의 신체적 부담 고려하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여성 노동자로 대상을 좁혀도 산재 인정 현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여성 노동자의 유병률이 남성 노동자보다 높지만, 2021년 근골격계 질환 산재 승인율을 보면, 여성은 60.44%, 남성은 72.84%를 기록했다. 일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하루 25회 이상, 10kg 이상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준다고 정의하고 있다. 까닭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량을 다루는 여성 노동자는 근골격계 질환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남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준을 가지고 질병을 판정하는 데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또한 대다수 남성이다. 판정에서 여성의 노동이 신체에 주는 부담이 간과되기 쉽다는 이야기다.

성별 간 신체적·생리적 특성 반영이 중요, 성별 분리 통계의 필요성!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인정률을 질병·지역·업종·사업장규모·근속기간 등에 따라 집계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인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구체적 질병 유형 등은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여성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과 시사점 이슈 분석'에 의하면 성별 간 재해 업종 및 유형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보건 정책 수립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생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결과로,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재해 유형은 무엇이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또한 선행돼야 한다.

경기도 내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2020년)



출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